

‘홍보’로 템플스테이 참여 늘리자

충남 템플스테이 관계자 간담회 개최

“템플스테이 참여 인구가 지난 2007년의 경우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내부 문제로 홍보가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충남 템플스테이 관계자 간담회가 4월 30일 공주 영평사주지 관사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처사 주지 주경 스님은 “광고 안내 표지판을 만들 때 담당 시·군 관할의 템플스테이 사찰을 함께 표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홍보마케팅 부분을 사찰 실무자들과 충남도정 관계자들이 모여 1년에 2차례 정도 실무 협의를 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에 충남도청 문화관광과 박윤근 국장은 “관광 안내 표지판과 안내 책자의 템플스테이 사찰 표기는 추후

변경되는 표지판과 책자에 반영할 것”이며 “홍보마케팅 실무 회의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즉각 협의단을 구성하겠다”고 답했다.

이외 수덕사 정경 스님은 사찰 내 배치된 문화해설사의 소양 문제와 공주시와 부여군이 주최하는 ‘백제 문화제’에서의 템플스테이 홍보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문화해설사들이 스님들에게 직접 교육받는 시간을 늘리고, 해설사를 채용할 때 사찰측과 협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평사의 구절초 꽃 축제와 템플스테이의 연계, 도정 관계자들의 템투어(temtour, 템플스테이 사찰을 연계해 여러 사찰의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는 것)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손효선 기자

서해 희생자 위한 천도재 열려

대불충·방생법회 ‘나라와 중생을 위한 용왕대제’



4월 26일 한강에서 열린 ‘나라와 중생을 위한 용왕대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공동회장 대표 박희도)와 대한불교조계종방생법회(회장 이근희)가 4월 26일 한강수상법당에서 ‘나라와 중생을 위한 용왕대제’를 봉행했다.

서해교전 희생자와 서해 기름유출 사고의 희생자, 유주 무주고혼을 천도하기 위해 열린 용왕대제는 한강수상법당에서 1부 법회가, 유람선에서 2부 용왕제가 열렸다.

1부 법회에서 박희도 회장은 “서해교전 희생자, 서해안 기름유출 희생자 등을 천도하고자 용왕대제를

마련하게 됐다”며 “탐욕을 반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국가 발전에 적으나마 기원코자 한다”고 인사말 했다.

2부 용왕대제에서는 김아리 시인의 헌시 낭송, 서인숙씨의 살풀이춤, 이종철 화백의 달마도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이종철 화백은 달마도 퍼포먼스 이후 인세 1000만원을 대불충에 즉석에서 기부해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어 하림각 남상해 대표가 대불충 공동회장으로 추대돼 임명장을 받았다.

김지연 기자

“강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평화재단, 공주 곰나루서 대운하 반대 법회

“인간 생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줄기와 강줄기도 생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오만을 반성합니다.”

활발한 환경·사회운동을 펼쳐 온 재단법인 평화재단(대표 법륜)이 4월 27일, 공주시 웅진동 곰나루 솔밭에서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고 생명을 함부로 해한 것을 반성하는 ‘참회 법회’를 거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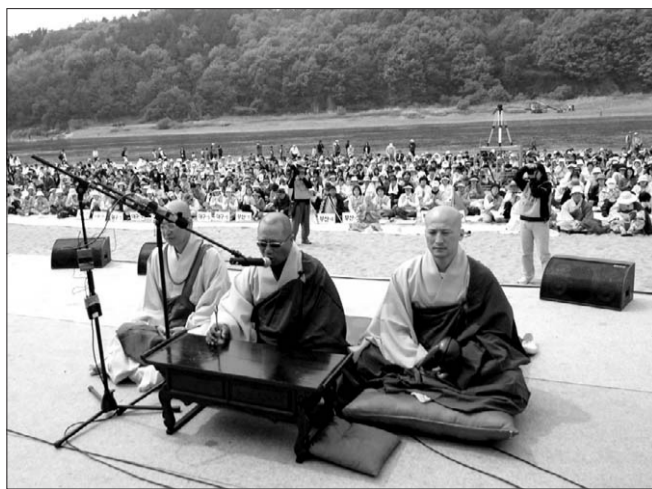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반대하는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이 하순례단’의 참회 순례가 이어진 지 67일째 되던 이날, 1500여 대중이 동참한 참회법회는 법륜 스님의 법문과 불교환경연대 상임 대표 수경 스님의 천도재, 순례단과 참석 대중의 108배 참회의 기도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법륜 스님은 법문을 통해 “현재 우리들은 소비 중독과 같은 잘못된 삶의 방식에 중독되어 있기에 도덕성과 평화, 환경문제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경제에기만

하고 있다”며 “이 자리를 통해 대운하사업을 반대하고 지난 시절 경제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들을 해친 것에 대해 참회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경 스님의 집전으로 인간에 의해 사라져간 생명에 대한 참회와 평안을 기원하는 천도재가 봉행됐다. 천도재의 시작을 알리는 수덕사 포교국장 정경 스님의 법고 연주가 곰나루 솔밭에 울려 퍼지자, 참석한 1500여 사부대중은 경건한 마음으로 의식에 동참했다. 이와 함께 금강발전지에서 떠온 물로 ‘생명의 물’을 모시는 의식도 함께 진행됐다.

참회의 108배는 금강을 바라보며 “나 살자고 다른 생명 해친 죄를 참회 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 함부로 죽인 죄를 참회 합니다”, “사람 길을 낸다고 산과 들을 파헤쳐서 짐승 길을 끊어놓아 수많은 생명을 차르 치어 죽인 죄를 참회 합니다”등 36개의 ‘참회



4월 27일 공주 곰나루에서 열린 대운하 반대 참회법회. 왼쪽부터 법륜, 수경, 유수 스님.

문’에 맞춰 각각 3배씩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순례단을 맞는 축하 무대도 함께 열렸다. 가수 안치환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와 ‘내버려둬’ 등을, 뮤지컬 배우 박철우씨는 ‘삼목수’, ‘희망의 나라로’ 등을 불러 박수를 받았다. 이밖에도 유희리 연주가 한테주 씨, 배우 배종옥씨, 방송작가 노희경씨 등도 대운하 반대에 지지를

표명했다. 지난 2월 12일 김포 하성면 애기봉 전망대에서 ‘종교인 생명평화 100일 도보 순례’를 시작한 순례단은 이날 이후에는 금강을 따라 계속 이동하며 순례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자세한 이동 경로 및 세부 일정은 순례단 홈페이지(www.saveriver.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주=손효선 기자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 진산식

사대부중 1천여명 ‘축하’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신임 주지 노현 스님의 진산식이 봉행됐다. 4월 25일 법주사 대웅전에서 봉행된 이번 진산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종회의장 자승, 중앙신도회장 김의정씨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노현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문중 화합, 포교활성화, 복지사업, 수행공간 마련 등을 중요 과제로 제시했다.

노현 스님은 “법주사 선원과 함께 강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정법이 살아 숨쉬는 자비도량으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현 스님은 강원도 정선 출신으로 1982년 탄성 스님을 은사로 수계하고 고운사 재무국장, 각하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는 각하사 태백선원장과 14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으로 있다. 스님은 3월 10일 열린 법주사 산중총회에서 주지후보로 합의추대 됐고, 임기는 4년이다. 손효선 기자



법주사 주지 진산식에서 인사말하는 노현 스님.

대전시청 직장불자회 창립 기념 법회

대전광역시청직장불자회(회장 이진욱)가 창립 6주년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특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4월 29일 대전광역시 시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법회에는 대구 관오사 불교사회복지회 회장 자광, 백제불교회관 이사장 장국, 대전비구니청림회 회장 효경, 동화사 주지 요령,

만불선원 주지 선오, 무상사 주지 무심 스님과 대전시 박성호 시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성호 시장은 축사에서 “대전광역시청직장불자회 창립 6주년과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부처님 이 미소 지을 수 있는 행(行)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효선 기자

청주불교방송 개국 11주년 기념 법회

BBS청주불교방송이 4월 29일 ‘개국 11주년 기념 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법주사 회주 혜정, 법주사 주지 노현, 관음사 주지 현진, 화강사 주지 무진, 석문사 주지 혜전 스님과 남상우 청주시장, 오세제 국회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혜정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께서 45년간 중생들에게 설한 그 말씀을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서 청주불교방송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라며 “타 방송국에 비해 열악한 환경이지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효선 기자

충북 부처님오신날 맞아 산사 음악회 잇달아 열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충청 지역에 산사 음악회가 잇달아 열린다.

천안 각원사는 9일 오후 7시 각원사 청동대불상 앞 야외무대에서 ‘범음 음악회’를 연다. 대중가수 이상은, 퓨전국악밴드 홀(wHool), 타악 앙상블 포기헤드(Four Gig Heads)등이 출연한다. (041)561-3545

서산 서광사는 10일 오후 7시 30분 대웅전 야외무대에서 탤런트 이의정의 사회로 ‘서광사 불맞이 산사 음악회’를 연다.(041)664-2002

또한 청주 관음사는 ‘트롯트 산사 음악회’를 연다. 12일 오후 7시 30분 우암산 순환도로 청주대학교 후문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043)257-0565 손효선 기자

충북북도불교총연합회 부처님오신날 기원 법회

충북불교총연합회(회장 노현, 법주사 주지)는 1일 청주 명암타워에서 부처님오신날을 탄원하고, 도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부처님오신날 기원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노현 스님은 봉축 법어에서 “불교는 모든 분야를 포용하고, 현실적인 삶을 창조적으로 이끌어 주는 실제적인 가르침이다”며 “불자라면 분바람에 ‘불교적 정신’과 ‘도덕’이라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충북종무원장 원해, 대한불교수도원 주지 설곡, 관음사 주지 현진, 충청북도 이기용 교육감, 홍재형 국회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손효선 기자

옥천불교사암연합회 봉축공연·장학금전달

옥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철)는 5일 옥천체육센터에서 ‘천진불(어린이) 세상’이라는 주제로 중국 소림무술 특별공연 등 문화공연을 펼쳤다.

이외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 법요식과 체육센터를 출발해 등기소, 경찰서를 지나 읍사무소까지 주된 평안과 안녕을 기원하는 제등행렬을 펼쳤다.

한편 대성사(주지 혜철) 오순근 신도회장은 군내 불우한 가정의 학생들에게 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손효선 기자

佛紀 2552년 부처님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재단법인 한국불교증흥교원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현

총회의장 오봉 원로의원 정엄, 동산 수석부의장 청허 사무총장 청호

감찰원장 월산	문화원장 도신	
교육원장 보명	비서실장 청목	
총무부장 청공	재무부장 유정	교무부장 청심
호법부장 혜송	호법국장 청담	포교부장 원산
의전부장 해강	문화부장 지현	간사 예화
경북종무원장 해능	전북종무원장 진성	

총본산 정우여래사 청계성왕사 무극지장사 봉암지장선원 일도심복사 혜종화엄사 중현묘인암 지선연수사 정목보은사 정봉쌍계사 해조원각사 랑지법회사 두타길상선원 영주보현선원 청주참선공덕사 선학도법사 명진운부묘연광음사 해광극락정사 해인대원정사 무명보현선원 혜종상무정사 상무선법사 청신구룡사 수진행복선원 태광관음사 청불여엄암 덕덕사 덕균일월암 일월해강사 연화약사여래암 경오만수사 원경영봉암 원성노불사 보화동인사 운봉고산사 중계금룡암 혜경묘진암 지선관음사 법성계관음사 득봉철마사 청담

■ 임종 구비서류
- 사진 5매 (반명함판 3×4)
- 주민등록등본 1통 - 이력서 1통
- 태학: 사암등록증 발급, 임명장 수여, 승려증 발급
※ 자세한 문의는 총무원으로 문의바랍니다.

■ 주소 : 인천 계양구 오류동 155-2번지 보현선원 / 전화 032)518-1588, 011-9524-8080